

## 푸대접 9년... KTX도 '눈물의 호남선'

### '반쪽 고속철도'에 운행 횟수도 경부선 30%도 안돼 전라선 여수·순천 승객 증가 불구 '찜땀 증편' 그쳐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만 9년이 됐지만, 호남 푸대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선과 전라선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경부선과 달리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사실상 '반쪽 고속철도'인데다 운행 횟수도 경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민들의 불만은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코레일 측은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 전라선과 호남선을 각각 주 2회와 주 3회 증편했지만, 여전히 생색내기식 '찜땀'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과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운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의 경우 경부선 주중 평균 운행 횟수는 147회

(73.2%), 호남선은 42회(20.8%), 전라선은 12회(6%)였다.  
주말 증차율의 격차는 더욱 심했다. 경부선은 24회를 증편 운행하고 있고, 호남선은 2회 증편 운행에 그쳤다.  
반면, 전라선은 아예 단 1편도 주말 증차 운행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라선의 좌석 점유율은 다른 전제 KTX의 6%에 불과해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 측은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는 20일부터 용산~순천 간 전라선 KTX를 편도 주 2회 증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전라선 구간의 경우 여수와 순천지역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편도 2회 증편으로 전라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레일 측은 또 그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1편씩 감속 운행했던 호남선 KTX 광주~용산 간 구간을 지난 5일부터 정기편으로 편성 운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역민들의 민원 제기 등에 따라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

구 을)의원이 코레일 측에 정기편을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호남고속철도의 차질없는 개통과 함께 호남선 운행 편수 증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KTX 가용 여유 차량 활용과 KTX 산전 2대를 묶어 1편성으로 운행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내현 의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철도에 있어서 이용객 수요 등의 경제성 논리보다 시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호남선 열차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알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제2회 광주·전남 아줌마 축전



광주일보사가 '제2의 청춘, 아줌마들의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2회 아줌마 축전'을 개최합니다. 가정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주체인 주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전에는 인기 가수 공연 및 각종 축제 이벤트가 펼쳐지며 광주전남북 모든 시군구의 최우선 농수축산식품 판매부스가 설치됩니다.  
특히 이번 축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기 위해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립니다.

6월 7~9일 순천 팔마경기장  
지역농수특산품도 한자리에

### ● 첫째날 6월7일(금)

식전공연/농산물개장식/아줌마축전개막식/축하공연(퓨전전지현악공연)/아줌마팔씨름대회/아줌마댄스경연(예선)/유명가수 축하콘서트

### ● 둘째날 6월8일(토)

시군 예술단공연/아줌마골든벨/나노스타다(장기자랑경연)/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예선)/아줌마댄스경연(결선)/잉카엘라이어공연/추억의 낭만콘서트(7080가수출연)

### ● 셋째날 6월9일(일)

시군 예술단공연/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결선)/환상의 매직쇼/아줌마가요제(결선)

- \* 이벤트 참가자 전원 상품권 제공 / 입장객 매일 추첨 후 경품제공
-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기업홍보 등 선착순모집배치
- \* 참가문의 : 광주일보 프로젝트팀 062-220-0555 / 018-693-6604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시민·종교단체·정치인으로 구성된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9일 밤 광주주체국 앞에서 평화기원 촛불 집회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정부 "北 이르면 오늘 미사일 발사"

### 발사 준비 끝...北 "남한내 외국인 대피하라" 위협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이르면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정찰감시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뿐 아니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의 미사일 기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발과 스커드 4발, 노동 2발 등 7발을, 2009년 7월 4일에는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7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에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10일경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상에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인 서여유성함함에 이어 세종대왕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사거리 160km)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투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양평화위원회를 통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우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 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연희뉴스

사제 수품 50년 최창무 대주교  
▶ 인터뷰 2면

호남예술제 오늘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문의: 062-220-0541 홈페이지: art.kjmedia.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58 1956-2013 제58회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3. 4. 24 | 수 | ~ 5. 24 | 금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부분 2013. 4. 10 | 수 | ~ 4. 17 | 수 |  
미술·작문부분 2013. 5. 13 | 월 | ~ 5. 16 | 목 |

주최 | 61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청 | 전라남도교육청